

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속성 -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

이서구 · 신동호* · 김정태**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개발팀장 · *코뮤니타스 대표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Policy Properties -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

Lee, Seo-Gu · Shin, Dong-Ho* · Kim, Jung-Tae**

Team Leader, Fishing Village Department Fisheries Development,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Chief Executive Officer, Communitas*

***Associate Professor, Dep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study that examines the policy attribut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hoose to manag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The analysis data used raw materials for the survey of the welfare status of farmers and fishermen survey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analysis method used Quantile Regression. The policy attributes of public services wer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Peterson (1981)'s theory of policy types and the discussion of Holland (2015).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sector and the neighbors. The effective policy attribute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re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where policy benefits can directly go to individuals, or lead to social improvement. It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afe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our neighbors, the greater its importance.

Key words : Public Services, Quality of Life, Rural Development, Rural Senior Citizens

I. 서 론

삶의 질은 공공서비스 관리에서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다. 고급인적자본의 유입과 축적에 기여하는 삶의 질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각 지방정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Jung · Kim, 2008: 154). 인구이동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나, 지역의 경제적 요인은 주로 국가정책이나 초국가적인 산업적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삶의 질과 관련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리는 주로 지역과 밀착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삶의 질이 인구이동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살피는 것은 인구감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Merino · Prats, 2020).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삶의 질 관리를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고(Lee et al., 2018; Kim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Tae

Tel : +82-41-330-1382

E-mail : kjt2013@kongju.ac.kr

et al., 2013; Song, 2007), 인구이동과의 관계(Lee, 2018), 공공서비스의 유형(Ko · Ko, 2017)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살핀 연구들은 경제상황과 노동기회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거나(Franklin et al., 2018; Graziul et al., 2018; Kasraian et al., 2016; Easterling et al., 2011), 환경과 역사문화유산과 같이 지역 내에 위치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촉진(Badulescu · Badulescu, 2017; Lupi et al., 2017) 등의 정책실현을 주된 역할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취약계층(Yoon et al., 2016; Jang · Yoon, 2015; Choi · Kim, 2009; Yun · Yun, 2003)과 수행된 사업을 대상(Park · Lee, 2019; Park et al., 2017; Yoo · Chae, 2009)으로 삶의 질 결정요인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 같은 연구경향의 차이는 도시와 농촌이 당면한 경제적 상황의 차이일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도 삶의 질은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을 근거로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시행사업에서 주된 목표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재원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사업목표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고, 삶의 질에 미친 효과성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농촌에서 삶의 질은 필요에 의해 언급될 뿐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촌과 달리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삶의 질을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유형과 속성에 대한 접근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보다 더디어 농촌지역에서 찾아낸 삶의 질 결정요인 등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속성과악이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Peterson(1981)과 Holland(2015)의 정책유형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동질성을 최대화하고 다른 변수들의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초등학교 졸업자, 부부세대(2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들 연령층은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삶의 질 수준을 종속변수로, 공공서비스의 부문별 만족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이하 QR)분석을 이용하였다. QR분석은 임의로 표본을 분할하지 않고, 분위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면서 모든 관측치를 이용하여 표본선택

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Kim, 2009), 종속변수의 분포의 특정한 지점에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 Heo, 2011). 따라서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낮은 삶의 질 수준과 높은 삶의 질 수준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지를 분석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지역에 따라 기후, 자연환경, 인구구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관리 능력 또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Ko · Ko, 2017: 28). 따라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내용의 구체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마을사업의 재원이 이양된 현 시점에서 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할 지방정부의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유형의 시각과 한계

Peterson(1981)은 미국 도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정부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중산층과 투자자의 유입, 세수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도시한계론(the City Limits)을 주장하였다. 도시지방정부는 주된 납세자에게 세금액 보다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개발정책을 수단으로 중산층과 투자자를 도시로 유입시킨다. 도시정부의 정책유형은 납세액과 공공서비스의 편익정도에 따라 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Peterson(1981)의 정책유형구분은 지금까지 지역수준에서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Wolff, 1996),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와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Lee, 2018; Yoo, 2011).

정책유형 구분은 정책으로 인해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한계이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발정책은 경제적 순익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재분배정책은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 그리고 할당정책은 이들 두 정책 영역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혜택만큼 비용이 소요되기에 편익-비용분석이 대략 0에 수렴한다(Ko · Ko, 2017: 30).

Peterson(1981)의 주장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만족수준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구이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전제하는데,

Table 1. Peterson's Policy Classification Criteria

Type	Criteria	Example
D.P.	Tex > Benefit	economic conditions (wage, income, jobs, local economy,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urban development,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etc.)
A.P.	Tex = Benefit	Management functions (public safety, park, leisure service, natural environment, education, living environment, etc.)
R.P.	Tex < Benefit	Social welfare service

출처 : Ko · Ko(2017)의 논문내용을 정리.
D.P.(개발정책), A.P.(할당정책), R.P.(재분배정책) 이하동일

이러한 가정은 Tiebout(1956)의 ‘발로 하는 투표’로 일컬어지는 공공선택이론에 근거한다. 즉 개인은 자기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Tiebout(1956)의 가정은 한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고, 이주동기에 경제적 요인만 작용함을 가정한다. Peterson(1981)은 티보의 가정 중 개인의 불완전한 정보를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은 거주지 결정에 지방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주동기가 세금과 혜택(공공서비스)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농촌사회는 도시보다 강한 유대감과 호혜성으로 얽혀져 있다.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공유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민 간 유대감은 거주지만족에 영향을 미쳐 이주경향을 작게 한다(Kim, 2017: 3). 또한 도시에서 형성된 재원이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재정의 이중성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농촌주민의 이주의사는 Peterson(1981)의 시각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Peterson(1981)의 논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인 삶의 질 요소를 정책부문에 유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로 승화시킨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예컨대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의 속성을 구분시키고, 이를 통해 범주화된 정책 상황으로 연결시켜 지역차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살필 수 있게 한다.

Holland(2015)는 정책설계의 기초를 다루는 문헌의 상당수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어디(Where)’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도적 분석을 통해 도시정책의 구성요소는 ‘사람(man) 대 장소(place)’, ‘경제 대 사회’, 그리고 ‘공공주도 대 민간 주도’라는 세 가지 다른 연속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olland(2015)는 사람과 장소의 구분기준은 정책의 초점이 개인과 장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인가이며,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경제, 경제를 제외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개선과 관련되는 것을 사회로 구분한다. 공공 대 민간주도는 정부부문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것일 경우 공공주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제안하는 것을 민간주도로 구분한다.

그러나 Holland(2015)는 본질적으로 정책은 의사결정자의 우선순위나 선호도를 반영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정책실행은 사실상 양쪽 선택의 혼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예컨대 탁아소는 ‘장소’에 초점을 둔 정책이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olland(2015)의 논의는 이 같은 우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정책대상이 누구이고, 누가 주도해야 하며,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살피는 파일럿 성격의 연구임을 감안하여 Peterson(1981)의 연구 및 이를 근거로 정책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들(Lee, 2018; Ko · Ko, 2017; Yoo, 2011), Holland(2015: 128)의 정책속성 구분을 반영하여 <Table 2>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속성을 구분하였다.

2. 농촌지역개발에서 삶의 질 관리의 필요성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농촌경제연구원(Park · Choi, 2002)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토대 중 수용능력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선택하고 있다. 수용능력접근법은 생활의 관점에서 인간의 필요욕구와 대응되는 수단가치의 결합을 통하여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Kim(2018)은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양적·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즉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생활환경과 관련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과 지방정부로 찾아볼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Table 3>),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비교, 혹은 수행된 사업이 효과성을 삶의 질 향상에 준 정도로 검증하거나, 삶의 질 결정요인의 규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촌과 도시 간의 비교 연구는 주로

Table 2. Policy Types and Features of Public Service Types

Policy Types of Local Governments	Type	Policy Properties in Holland (2015)		
		policy-driven	Policy Target	Policy Impact
(emergency) Health care, such as convenience in using medical services	R.P.	Private	Man	Social
Support welfare services, such as health, income, living, childcare, etc.	R.P.	Public	Man	economic
Educational conditions, such as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children	A.P.	Public	Man	economic
Cultural and leisure conditions, such as culture and arts, sports travel, etc.	A.P.	Public	Place	Social
Basic living base, such as housing, roads, public transportation, etc.	D.P.	Public	Place	economic
safety from natural disasters, accidents, crimes, etc	A.P.	Public	Place	Social
Clean and beautiful nature, etc. environment and scenery	A.P.	Public	Place	Social
Relationship with neighbors, such as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exchanges, etc.	A.P.	Private	Man	Social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job opportunities, income, prices, etc.	D.P.	Public	Place	economic
Income	D.P.	Private	Man	economic

농촌지역에 대한 재원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성과를 찾는 접근은 사업의 내용적 측면의 타당성을 살필 수 있으나,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설령 몇 가지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들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독립 변수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한 집단별로 군집화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Choi, 2019: 2).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Noh · Kang(2018)은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기반 약화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한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Kim(2018)과 Song · Kwon(2014)은 생활환경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수준은 농촌주민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주고, Ma(2012: 2)는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선행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공통된 입장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가 농촌인구 유입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우리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시가 되었던 영국의 농촌서비스는 국가적 수준에서 2000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시행되었으나, 농어촌지역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 등 지역별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 많아 2007년부터 국가수준의 단일기준을 폐지하였다. 이후 응급조치 소요시간 등 일부사항(응급환자 구급을 위한 앰블런스 도착시간 등)에 대해 관련기관

에서 기준을 결정하고,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 영국 내에서 농촌서비스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특정한 기준의 적용은 없는 상태이다(Kwon et al., 2013: 11). 즉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와 각종 기능의 밀도가 낮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기반은 약한 반면에 1인당 서비스 제공비용은 훨씬 높다(Noh · Kang, 2018: 296). 농촌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논의들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의 다중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농촌과 인근 도시가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는데(Koo et al., 2017; Kim · Koo, 2013: 6), 이러한 논의는 생활권개념을 바탕으로 삶의 질 관리를 통해 공공서비스망을 확충하는 도시지역의 전략과 닮아 있다. 즉 지자체별 시설과 서비스망을 확충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의 파악과 부족한 부분의 중점적인 관리를 위해 접근되는 지역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자원소요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농촌과 같이 지역계층구조가 낮은 지역은 만족하는 부분의 향상보다 불만족 수준의 관리가 인구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중요한데(Choi et al., 2002), 지역차원에서 인구유출을 막는 정책 개발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실행방안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할 것이나, 무엇보다 농촌지방정부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Table 3. A Study on the Public Service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

	Researcher	Topic	Method		
			Target	Data	Analysis
Role of local Government	Choi et al.(2019)	Differences in Community Well-being Capital and Quality of Life by Urban and Rural	27 cities and counties	Survey(2,723)	DEA
	Noh · Kang(2018)	Types and management plans of public service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Resident of a rural areas	Survey(720)	Frequency, Mean
	Yeo · Cho(2016)	Aging Levels and Trends in Disagreements in Public Services Offered	Rural	Population and Housing Data	Spatial autocorrelation
	Uhm(2017)	An Analysis of the Linkage Effec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Rural Area	2 Counties	Survey(150)	Cost benefit
	Choi · Yang(2015)	Experiences of using public services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and their demands for welfare services	Rural Elderly	Interview(19)	Content Analysis
	Song · Kwon(2014)	The Life Satisfaction and Migrant's Conscience	20 Counties	Survey(681)	Frequency, ANOVA
	Kim · Jang(2013)	Differences in Public Services to the Quality of Life in Urban and Rural Areas	1 City, 1 Rural	Survey(450)	t-test
	Choi(2012)	Causal structure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life in rural areas	literature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System Dynamics
Project effectiveness	Park · Lee(2019)	Effect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Traditional Study)	4 Project Completion Districts	Survey(511)	ANOVA
	Kim · Jung(2019)	Estimation of the Performance Path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a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38 Project Completion Districts	Survey(157)	SEM
	Kim(2019)	The Effect of Community Servi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1 Countries	Survey(186)	Paired t-test
	Kim(2017)	Validation of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Objective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38 Project Completion Districts	Survey(157)	SEM
	Park et al.(2017)	Effect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ransverse Studies)	6 Project Completion Districts	Survey(420)	SEM
	Kim et al.(2017)	The Effect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Returnees	1 Country	Survey(52)	OLS
	Choi(2019)	Exploring the Combination Conditions for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Life	27 Cities and Countries	Survey(2,700)	Decision Tree
Social Welfare	Cho(2019)	Effects of Rural Elderly Participation in Senior Citizen Centers on Happiness	Chungbuk	Survey(363)	OLS
	Cho · Jeon(2016)	The Effect of Health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Aged over 65	Survey(438)	OLS
	Yoon et al.(2016)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Quality of Health-Related Life of Married Migrant Women	Marriage Migrant Woman	Survey(12,324)	OLS
	Jang · Yoon(2015)	Factors Affecting Rural Youth's Satisfaction with Life by Regional Scale	Nationwide	Survey(2,409)	OLS
	Kang · Park(2013)	A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the Long-Term Area	3 Countries	Survey(171)	SEM
	Choi · Kim(2009)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for Rural Women according to Family Types	Rural Woman	Survey(280)	OLS, LR

III.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 조사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척도’를 근거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부문별로 구분하고 5년을 주기로 조사한다. 설문문항 중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9개 부문으로 구분된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각 분석문항은 매우불만(=1), 불만(=2), 보통(3), 만족(=4), 매우만족(=5)으로 등간이 구분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읍·면간의 생활환경 격차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변수를 투입하였다. 소득은 노인들의 삶의 질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Park · Son,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중 소득사업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총 표본 수는 3,972명이나 일차적으로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 무응답 대상자를 제거하였다. 이차적으로는 표본특성을 가급적 동일화시켜 개인적 배경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를 추출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중퇴자 포함)이며 65세 이상인 분석표본 505명을 추출하였다. 가령, 학력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된 변수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학력수준을 반영하면, 소득효과분석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변량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각 개별변수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고(<Table 4>), Bentler(1998)의 $|변수| \leq 3$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변수의 첨도(=11.309)는 Bentler(1998)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log로 변환하였다. log로 변환한 소득변수(xlb28)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154, 0.669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Table 4>, <Figure 1>). 2019년 기준(e-nara index)으로 2인 가족의 월평균 중위소득은 2,906,528인데, 설정된 표본의 평균소득은 1,291만원이며 3분위(75%) 소득이 2,000만원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선택된 표본은 소득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설문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성이 328명(65.0%)으로 여성 177명(35.0%)보다 많고, 연령대는 60대 99명(16.6%), 70대 이상 406명(80.4%)로 70대 이상이 많았다. 거주지는 면 지역 거주자가 429명(85.0%)으로, 읍 지역 거주자인 76명(15.0%)보다 많다(<Tab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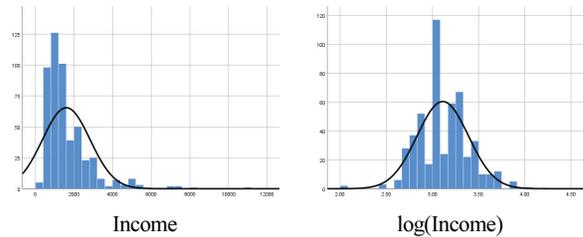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income variables Income and log(Income)

Table 4. Attribute Value of Analysis Material

Variable Name	Min	1st Qu.	Mean	3rd Qu.	Max.	Distribution	
						Skewness	Kurtosis
xb9_12 health and medical care	1.000	2.000	3.028	4.000	5.000	-0.344	-0.340
xb9_22 welfare service	1.000	3.000	3.069	4.000	5.000	-0.049	0.013
xb9_32 ducational conditions	1.000	3.000	2.905	3.000	5.000	-0.108	0.492
xb9_42 culture and leisure	1.000	3.000	2.974	3.000	5.000	0.069	0.003
xb9_52 basic living base	1.000	3.000	3.125	4.000	5.000	-0.199	-0.172
xb9_62 Safety	1.000	3.000	3.766	4.000	5.000	-0.325	-0.137
xb9_72 environment and landscape	2.000	3.000	3.824	4.000	5.000	-0.243	-0.392
xb9_82 neighborly relations	1.000	3.000	3.764	4.000	5.000	-0.361	0.164
xb9_92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y	1.000	2.000	2.931	3.000	5.000	0.198	0.133
xlb28 log(Income)	2.000	2.903	3.111	3.301	4.041	0.154	0.669
xb28 Income	100	800	1,291	2,000	10,990	2.718	11.309

Table 5.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Gender		Age		Residence		Total
	Man	Woman	60s	Over 70s	Eup	Myun	
Fre.	328	177	99	406	76	429	505
%	65.0	35.0	19.6	80.4	15.0	85.0	100.0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이하 OLS)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병행하였다.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논문들은 OLS를 이용하였다. 분석형태를 보면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거나, 소득과 같은 개인적 배경의 작용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집단을 구분하고 분석한다.

OLS는 분석된 종속변수의 평균적인 분포를 가정하고 개별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영향을 받아 개별변수들의 작용형태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동일하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집단을 구분하고 분석하게 되면 분할과정에서 계수추정에 편의(Bias)가 나타나며(Kim, 2014: 174), 종속변수의 단절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표본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뒤따른다.

그러나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는 종속변수 전체의 조건부 분포를 이용하게 되어 전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Jung, 2014; Kim · Hong, 2011), 각 분포별 이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수의 작용형태를 명확히 살필 수 있다. 즉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분포의 각 분위별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이 다르다면, ‘평균적’ 결정요인만을 추정하는 OLS로는 분석할 수 없는 각 분위별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해 볼 수 있기(Choi et al., 2005)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의 작용형태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우선 OLS로 분석하고, 삶의 질 수준별 개별 독립변수들의 작용형태를 명확히 살피고자 QR을 이용하였다.

우선 OLS분석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설명하면, 개인 i 의 삶의 질의 구성은 9개 부문의 생활환경조건(<Table 4>)과 소득(xlb28), 거주지(xqlr)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거주지는 읍과 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미 변수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QOL_i = \beta_0 + \beta_1 xqlr + \beta_2 xlb28 + \beta_3 xlb22 + \beta_4 xlb32 + \beta_5 xlb42 + \beta_6 xlb52 + \beta_7 xlb62 + \beta_8 xlb72 + \beta_9 xlb82 + \beta_{10} xlb28 + e_i \quad (1)$$

QR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2)식으로 표현되는데,

$$QOL_i = x_i \beta_\tau + \mu_{\tau i} \quad Q_\tau(QOL_i | x_i) = x_i \beta_\tau, \quad i = 1, 2, 3, \dots, n \quad (2)$$

여기에서 $Q_\tau(QOL_i | x_i)$ 는 τ 번째 조건부 분위를 나타내며, 모든 i 에 대해 $Q_\tau(QOL_i | x_i) = 0$ 을 가정한다. 이때, β_τ 추정은 주어진 분위에서 다음의 식과 같이 가중된 절대편차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조건부 분위함수를 추정한다.

$$\min_i \sum |e_i| \theta_i = \sum |QOL_i - x_i \beta| \theta_i$$

$$\theta_i = \begin{cases} 2q & , \text{if } e_i > 0 \\ 2(1-q) & , \text{if } e_i < 0 \end{cases}$$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밀히 하고자 삶의 질 수준을 4분위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β 는 계수로서 설명변수가 k 개일 때, $k \times 1$ 의 벡터이다. x_i 는 설명변수로서 총 k 개이며, e_i 는 오차항이며, q_i 는 분위로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IV. 분석결과

1. OLS와 QR 분석결과와의 비교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Table 6>), OLS를 이용한 결과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경제활동여건($\beta=0.200, p<0.01$), 복지서비스($\beta=0.173, p<0.01$), 이웃 간 관계($\beta=0.165, p<0.01$), 안전($\beta=0.141, p<0.01$)의 4개 변인만이 작용하지만, QR을 이용한 결과에서는 동일한 4개 변수가 분위별로 영향력이 다르며 소득과 문화·여가 부문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새롭게 나타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부문별 영향력이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QR 분석결과를 분위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 삶의 질 수준에 영향력이 가장 큰 부문은 소득($\beta=0.206, p<0.05$), 경제활동요건($\beta=0.193, p$

<0.01), 복지서비스($\beta=0.159$, $p<0.01$), 안전($\beta=0.158$, $p<0.01$), 이웃 간 관계($\beta=0.131$, $p<0.01$) 문화·여가($\beta=0.112$, $p<0.0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OLS 분석과 다른 점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문화·여가 부문과 소득이 영향을 주고 있다.

2분위에서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복지서비스($\beta=0.240$, $p<0.01$), 경제활동여건($\beta=0.190$, $p<0.01$), 안전($\beta=0.166$, $p<0.01$), 이웃 간 관계($\beta=0.143$, $p<0.01$), 문화·여가($\beta=0.099$, $p<0.01$)의 순이다. 특이점은 1분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소득이 2분위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복지서비스가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3분위에서는 안전($\beta=0.238$, $p<0.05$), 이웃 간 관계($\beta=0.200$, $p<0.05$), 경제활동여건($\beta=0.131$, $p<0.01$)의 순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복지서비스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즉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들이 작용하는 형태로 살펴보면, 첫째, 2분위까지만 작용하는 변수, 3분위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구분된다. 둘째,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향과 감소하는 작용형태가 나타난다.

우선 1분위와 2분위에서만 작용하는 변수 중 복지서비스의 1분위 값은 $\beta=0.159$ 에서 2분위에는 $\beta=0.240$ 으로 상승하는 반면, 문화·여가 부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1분위 $\beta=0.112$ 에서 2분위 $\beta=0.099$ 로 감소한다. 3분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안전과 이웃 간의 관계, 경제활동 여건인데, 안전부문은 (1분위 $\beta=0.158$, 2분위 $\beta=0.166$, 3분위 $\beta=0.238$)과 이웃 간 관계 (1분위 $\beta=0.131$, 2분위 $\beta=0.143$, 3분위 $\beta=0.200$)는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한다. 반면 경제활동 여건 (1분위 $\beta=0.193$, 2분위 $\beta=0.190$, 3분위 $\beta=0.131$)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안전부문과 이웃 간 관계형성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삶의 질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이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Figure 2>는 삶의 만족수준을 20분위로 구분하고, 각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실선으로 표현된 것은 OLS로 분석된 결과 값이며, 점선으로 표현된 것은 이를 중심으로 한 95% 신뢰구간을 표현한 것이다.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은 QR분석을 통해 계산된 95%의 신뢰구간이다. <Figure 2>를 보면 삶의 질 수준이 상위 80% 이상이 되면 대다수의 변수가 갖는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지거나 0에 수렴한다. 이를 통해 보면 농촌 주민 중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공공서비스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제3의 요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감소하는 것은 제3의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Figure 2>에서 파악되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우선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된 정책적 대상은 삶의 질 수준이 3분위 이하 집단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정책유형의 특징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가 분위별로 종류가 다르고, 각각의 영향력이 상이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분위별 영향을 주는 개별 공공서비스들의 속성을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위별 특징으로 설정하였다. 영향력을 고려한 특징은 유의수준이 있는 공공서비스의 영향력 값($=\beta$)만을 합한 후, 유의수준이 있는 각 개별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장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합하되, 총합 50%를 기준으로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부문만을 대상으로 속성을 파악하였다.

1분위의 특징을 살펴보면, 1분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영향력 순으로 구분해 보면, 소득(개발, 민간, 사람, 경제), 경제활동여건(개발, 공공, 장소, 경제), 복지서비스(재분배, 공공, 사람, 경제), 안전(할당, 공공, 장소, 사회), 이웃 간 관계(할당, 민간, 사람, 사회), 문화·여가는 할당, 공공, 장소, 사회의 속성을 지닌다.

1분위에서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속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율은 소득 20%, 경제활동여건 20%, 복지서비스 17%로 이들 3가지 공공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유의수준이 있는 전체 영향력의 57%를 차지한다. 이들 공공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개발정책을 지향하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정책의 영향이 경제적 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분위에서는 복지서비스(재분배, 공공, 사람, 경제), 경제활동여건(개발, 민간, 장소, 경제), 안전(할당, 공공, 장소, 사회), 이웃 간 관계(할당, 민간, 사람, 사회), 문화·여가는 할당정책, 공공, 장소, 사회의 속성을 갖는다. 2분위에서는 보건의료 29%, 경제활동여건 23% 두 공공서비스 부문이 전체 영향력의 52%를 차지한다. 이들 공공서비스의 주된 특징은 재분배정책과 개발정책을 선호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Table 6. Analysis results of OLS and QR

	Policy type				OLS		QR					
	Place				Value	Pr(> t)	0.25(1 Quartile)		0.50(2 Quartile)		0.75(3 Quartile)	
	Type	policy-driven	Policy Target	Policy Impact			Value	Pr(> t)	Value	Pr(> t)	Value	Pr(> t)
1. Constant					0.235	0.538	-0.387	0.320	-0.114	0.626	0.091	0.932
2. Region					-0.020	0.789	-0.005	0.932	0.002	0.966	-0.001	0.989
3. health & medical care	R.P.	Private	Man	Social	0.040	0.344	0.049	0.258	0.044	0.220	0.117	0.139
4. welfare service	R.P.	Public	Man	economic	0.173	0.000 ***	0.159	0.001 ***	0.240	0.000 ***	0.096	0.244
5. Educational conditions	A.P.	Public	Man	economic	0.012	0.799	0.042	0.284	0.041	0.227	-0.003	0.967
6. culture & leisure	A.P.	Public	Place	Social	0.032	0.505	0.112	0.005 ***	0.099	0.000 ***	0.027	0.670
7. basic living base	D.P.	Public	Place	economic	0.020	0.572	0.020	0.549	0.032	0.260	0.000	0.990
8. Safety	A.P.	Public	Place	Social	0.141	0.001 ***	0.158	0.000 ***	0.166	0.000 ***	0.238	0.014 **
9. environment & landscape	A.P.	Public	Place	Social	0.021	0.633	-0.024	0.597	0.021	0.465	0.031	0.742
10. neighborly relations	A.P.	Private	Man	Social	0.165	0.000 ***	0.131	0.000 ***	0.143	0.000 ***	0.200	0.034 **
11.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y	D.P.	Public	Place	economic	0.200	0.000 ***	0.193	0.000 ***	0.190	0.000 ***	0.131	0.030 **
12. Income	D.P.	Private	Man	economic	0.139	0.146	0.206	0.031 **	0.051	0.433	0.213	0.218

중요하다.

3분위에서는 안전(할당, 공공, 장소, 사회), 이웃 간 관계(할당, 민간, 사람, 사회), 경제활동여건(개발, 공공, 장소, 경제)만이 유의수준을 갖는데, 공공서비스 중 안전은 42%, 이웃 간 관계는 35%를 차지하여 두 공공서비스 부문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3분위의 특징은 모두 할당정책을 선호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보다 장소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중시되며, 공공서비스의 영향이 사회적 환경개선으로 연결될 때 효과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상의 결과는 삶의 질이 낮은 수준에서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효과적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면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할당정책이 효과적이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안전과 지역 내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부문은 장소 즉 지역사회 내 장소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경제활동여건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한다. 개발정책에 속하는 경제활동여건은 도시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농촌지방정부 역시 지구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부문이다. 그러나 개발정책인 경제활동여건의 영향력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대표적인 개발정책인 기초생활기반은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분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소득변수와 관련지어 보면, 직접적인 개인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 농촌지역에서 물가관리 등을 통한 생활비의 절약과 이웃 간의 관계를 높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 마련 등과 같은 지역 내 경제활동 여건개선을 위한 접근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다수의 역량강화사업에서 강조하는 문화여가 부문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며, 취미와 오락보다는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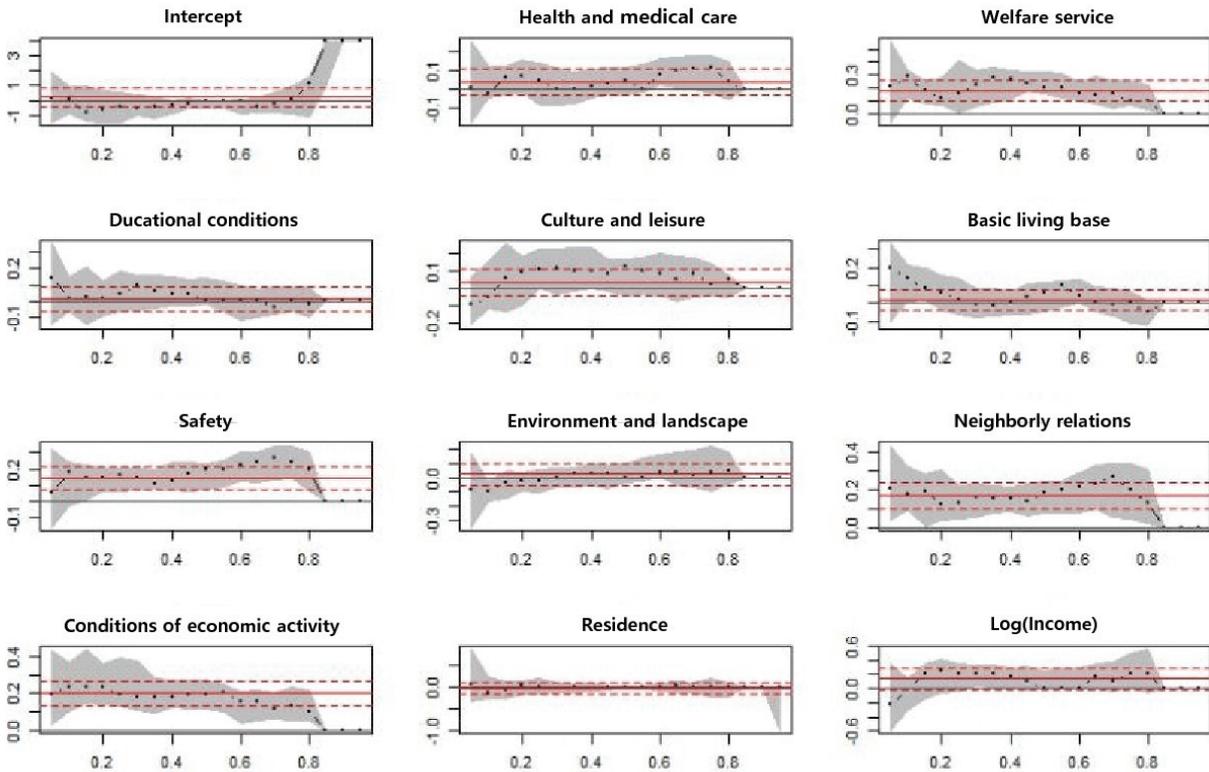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Influence of Variables

간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삶의 질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시사점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재정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노후에 맞는 생활여건과 환경의 제공이 중요하게 되었고, 농민수당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논의와 무관하게 농촌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측면에서 도시지역이 삶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위

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삶의 질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공공서비스가 갖는 정책속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의 속성은 정책편익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거나, 개인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이웃 간 관계와 같은 지역사회관리를 위한 할당정책이 효과적이고, 경제활동여건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개발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과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개선에 중심을 두고, 사업이 이익이 마을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되어 공유되는 것을 희망하기보다 주민 개개인에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서비스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력을 갖지만, 2분위수준에서만 작용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를 근거

로 재분배정책의 속성이 강한 농어민수당과 같은 정책은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효과적이나, 삶의 질 수준이 중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소득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상위 20% 이상의 집단들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여 영향력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가족관의 관계 등과 같은 제3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삶의 질 관리측면에서 농촌 지방정부의 주된 정책대상은 삶의 질 수준이 하위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이나, 제3의 영향요인을 찾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작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범주와 속성이 도시와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분류된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지역의 상황과 맞지 않은 정책적 속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속성이 농촌지역에 기초하여 세밀하게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촌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인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연령층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반화를 위해서는 각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시험적 연구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초적 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성과물(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 PJ014267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1. Badulescu, D. and Badulescu, A., 2017, Rural tourism development through cross-border cooperation, The case of Romanian-Hungarian cross-border area Eastern European Countryside, 23(1): 191-208, Google Scholar.
2. Bentler, P., 1998, "Re: Kurtosis, residuals, fit indices (Message posted to SEMNET listserv)", Msg No. 011264, March 10, available at: <https://listserv.ua.edu/cgi-bin/wa?A2=ind9803&L=SEMNET&X=B7D22F2476E942E97E&P=132719>.
3. Cho, C., 2019,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enior Citizen Center Programs in Rural Areas on Happines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Program Satisfaction,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6(1): 41-73.
4. Cho, K. and Jeon, G., 2016, Effects of Frailt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Rural Community-dwelling Elderly: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Fall-Related Efficac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7(4): 380-387.
5. Choi, J. and Kim, Y., 2009, The Quality of Life with family structure among the aged women who Living in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6(3): 503-532.
6. Choi, J. and Yang, Y., 2015, Welfare Experience and Needs of Rural elderly, *Korean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9(1): 295-313.
7. Choi, K., 2012, An Analysis of Causal Structure on Quality of Rural Lif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5(1): 137-161.
8. Choi, K., Jeong, J. and Jeong, J.,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8(1): 135-156.
9. Choi, M., Kang, Y. and Lee, S., 2019,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Quality of Life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Application of Community Well-being Mode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3): 329-356.
10. Choi, Y., 2019, Analysing multiple combinations of the conditions affecting local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3(1): 1-27.
11. Easterling, R., Angelescu, L. and Zweig, J., 2011, The impact of modern economic growth on urban-rur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World Development*, 39(12): 2187-2198, Google Scholar.
12. "e-nara index" accessed 28. October, 2020. URL :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_x_cd=2762
13. Franklin, R., Leeuwenb, E. and Paez, A., 2018, Chapter one, Transportation where people leave: An introduction *Advances in Transport Policy and Planning*, 2: 1-12, Google Scholar.
 14. Graziul, C., Seymour, E. and Schleith, D., 2018, Chapter eight, Commuting behavior and local population loss: Means of transportation to work as an indicator of urban decline, *Advances in Transport Policy and Planning*, 2: 185-205. Google Scholar.
 15. Holland, B., 2015, Typologies of national urban policy: A theoretical analysis, *Cities*, 48: 125-129.
 16. Jang, H. and Yoon, H., 2015,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R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Sizes of Region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2: 1-25.
 17. Jung, J. and Kim, D., 2008,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Administration of “Quality of Life” of Local Government: Case Study of Ul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2(2): 153-180.
 18. Jung, S., 2014, Analysis of the Impact of Agglomeration on Firm Performance Using Quantile Regression, *Journal of Market Economy*, 43(1): 95-121.
 19. Kang, S. and Park, I., 2013, Construction of a Model of Quality of Life in Longevity Region Dwelling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3): 302-313.
 20. Kasraian, D., Maat, K., Stead, D. and Wee, B., 2016, Long-term impact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networks on land-use change: An international review of empirical studies *Transport Reviews*, 36(6): 772-792, Google Scholar.
 21. Kim, C. and Koo, H., 201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Flow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Strategies for Win-win Development of Urban. *National Territory Policy Brief*, 419: 1-8.
 22. Kim, H., Cho, S. and Jin, K.,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Urban Requirements to Live in Korea,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5(2): 191-208.
 23. Kim, J., 2018, Rural jobs and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Monthly Public Policy*, 149: 20-22.
 24. Kim, J., 2014, The Valuation Effects of Housing Attributes in Korea: A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7(1): 173-195.
 25. Kim, J. and Jung N., 2019,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Paths of Rur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 Focusing Eup·Myon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2): 47-62.
 26. Kim, J., 2017,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as a Resul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27(2): 173-214.
 27. Kim, K. and Hong, W., 2011, Effect of Firms Activities on Their Performance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4(2): 373-404.
 28. Kim, S. and Jang, S., 2013, A Study of the Perception difference on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Korean Policy Discussion*, 13: 88-103.
 29. Kim, Y.,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Before and After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Focus on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3(1): 417-435.
 30. Kim, Y., 2009, Wage Determinants in the Korean Labour Market,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19(2): 1-25.
 31. Ko, K. and Ko, 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Community Quality of Life in U.S. Cities : Focused on Peterson’s City Limits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Science*, 29(2): 27-55.
 32. Koo, H., Kim, T. and Lee, S., 2017, Let’s overcome the problem of small cities in the era of local population cliff with urban dieting, *National Territory Policy Brief*, 616: 1-8.
 33. Kwon, Y., Park, J. and Jung, O., 2013, Status of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asks for Promotion, *Policy Focus* 1-16.
 34. Lee, B., Kim, G. and Park, M., 2018,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 The Impacts of New Urban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98: 11-22.
 35. Lee, S. and Heo, S., 2011,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sidential Land Values in Seoul,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4(2): 591-612.
 36. Lee,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and Population Movement: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2): 301-335.
37. Lupi, C., Giaccio, V., Mastronardi, L., Giannelli, A. and Scardera, A., 2017, Exploring the features of agritourism and its contribution to rural development in Italy, *Land Use Policy*, 64: 383-390.
 38. Ma, S., 2012, Policy Proposal for Successful Rural Village Development, *Gyeongnam Policy Brief*, 616: 1-8.
 39. Marino, F. and Prats, M., 2020, Why do some areas depopulate? The role of economic factors and local governments, *Cities*, 97:102506, available at: doi: <https://doi.org/10.1016/j.cities.2019.102506>.
 40. Noh, S. and Kang, I.,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Function Change of Rural Centers in the Age of Demolition of Population,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2(1): 289-310.
 41. Park, D. and Choi, K., 2002,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Rural Economic Institute*.
 42. Park, J., Kim, M. and Kim, Y., 2017, Study on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3(4): 75-90.
 43. Park, S. and Son, J., 2016, Factor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Income Group,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4): 97-124.
 44. Park, Y. and Lee, S.,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cognition of Quality of Life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Focused on Four Rural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4(3): 117-137.
 45. Peterson, P., 1981, *City Limi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r.
 46. Song, K., 2007,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Which Effect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by Regional District,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1(3): 35-52.
 47. Song, M. and Kwon, I., 2014,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of rural villages, *KREI Rural Affairs No. 1*.
 48.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 Polit. Econ.*, 64(5): 416-424, Google Scholar.
 49. Uhm, J., 2017, An Analysis of the Cost Effects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Rural Area : An Alternative Cost Effectiveness Analysi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40(3): 77-101.
 50. Wolff, N., 1997, Mayor: An inside view of San Antonio politics, 1981-1995 *San Antonio Express-News*, San Antonio, Google Scholar.
 51. Yoo, J., 2011, Empirical Verification of Key Assumptions in Urban Limit Theo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1): 101-121.
 52. Yoon, K., Jang, H. and Moon, S., 2016, The Comparative Analysis on QOL Related to Health of Immigrant Brides in Urban and Rural Area, *Social Science Research*, 42(2): 343-367.
 53. Yeo, C. and Cho, D., 2016,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Population Ageing and the Level of Public Welfare Servic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9(2): 286-299.
 54. Yoo, H. and Chae, E., 2009, The Influence of Rural Informatization Village Proj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2(3): 85-106.
 55. Yun, H. and Yun, G., 2003,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residing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2: 111-136.
-
- Received 28 October 2020
 - First Revised 9 November 2020
 - Finally Revised 16 November 2020
 - Accepted 17 November 2020